

강진군, 챗GPT-4o 활용해 외국인 민원 적극 대응

실시간 통역기능 활용 50가지 언어 음성대화 외국주민 언어 장벽 해소 100명 중 3명 다문화

강진군이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민원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신 인공지능 기술 챗GPT-4o를 활용한 선도적 행정 서비스 제공에 발빠른 시도를 하고 있다. 챗GPT-4o가 50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음성 대화가 가능해 외국인 민원 해결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회

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에서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정 민원인과의 업무처리를 생생하게 재현해 '챗GPT-4o'의 실시간 통역 기능을 외국인 민원에 활용하는 동영상 제작을 선보였다.

이는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에서 운영 중인 군 산하 공무원 4차산업 연구동아리에서 제안한 것으로 외국인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연결을 목표로 한다.

챗GPT-4o는 오픈AI가 새로 공개한 신규 AI 모델로 기존 모델보다 속도가 크게 개선돼 실시간 음성 대화가 가능하며 50가지 언어를 사용한다.

단순한 기계적인 번역을 넘어 문맥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정확한 번역을 제공할 뿐 아니라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강진군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은 각 실과별로 지난 2월부터 8개의 유료 계정을 제공해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에 있어 언제든지 쉽고 빠르게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오고 있다.

군은 이번 시연회를 시작으로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서비스를 지원해, 외국인 주민들이 겪는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민원 처리 과정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수혜자 중심으로 바꿔간다는 계획이

다. 현재 전남 인구 100명 중 3명이 다문화 가정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과의 소통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쉽고 빠른 AI 활용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과 속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챗GPT-4o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과의 소통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무원 4차산업 연구동아리를 활성화해 현업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발굴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꿈드림 명랑운동회' 참여 무안군학교밖청소년

무안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25일 목포자연사박물관 광장 일원에서 진행된 '꿈드림 명랑운동회'에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꿈드림 명랑운동회는 전남도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해 친목을 도모하고자 운영됐다. 무안군 관내 소속 학교 밖 청소년 10여명이 단체줄넘기, 원반 공 튀기기, 훌라후프,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경기에 참여했다.

김기영 주민생활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여러 활동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유대감과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우리동네 하천살리기 활동 무안군청소년수련관

무안군 청소년수련관이 지난 25일 청소년 참여기구와 동아리 소속 청소년 20여명과 함께 '우리동네 하천 살리기' 활동을 진행했다.

29일 무안군에 따르면 우리동네 하천 살리기 활동은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으로 지난 11일 국립생태원을 방문한 이후 교육 내용을 실천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무안을 한다리교에서 수질 정화와 악취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EM 흙공 200개를 하천으로 던졌으며 추후 하천의 수질을 측정하는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영 주민생활과장은 "이번 EM흙공 던지기 활동은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지난 25일 무안 청소년 참여기구와 동아리 소속 청소년 20여명이 무안을 한다리교에서 EM흙공 200개를 던졌다. 무안군 제공

진도군, 어르신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앞장

디지털기기 사용법 안내 등

진도군은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디지털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디지털 서포터즈' 운영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찾아가는 디지털 서포터즈'는 디지털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을 도와 스마트폰 사용법 등을 익혀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다.

안내 도우미들이 매일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 20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스마트폰 앱 설치 방법부터 군민편의증진을 위한 보배섬소식통, 스마트마을방송 등 다양한 스마트폰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한다.



진도군이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디지털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디지털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진도군 제공

다. 교육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는 디지털

기기와 교육장소를 신청하면 디지털 서포터즈가 교육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방문 교육을 진행하고 반복 교육도 가능하다.

군은 어르신 교육 외에도 소상공인과 소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수특산품 인터넷 판매 지원을 위해 통신판매업 가입과 온라인 매장 입점 절차 등의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생활 속 디지털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500m 황토 맨발길 문 열어 무안회산백련지

무안군은 무안회산백련지 스마트팜에서 소공원 산책로 구간 일부에 길이 약 500m, 폭 2m 규모의 황토 맨발길을 조성해 6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회산백련지는 여름철 꽃을 피우는 연꽃의 특성상 여름 축제에 초점을 두고 관광객을 맞이했지만 황토맨발길 조성으로 인근 주민과 방문객에게 사계절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 조성된 맨발길기 코스구간에서는 연지를 한눈에 굽어볼 수 있으며 다양한 식생을 만날 수 있다. 자연적으로 울창한 나무 그늘이 형성되어 한여름에도 쾌적한 맨발걸기가 가능하다.

황토맨발길 시점과 종점부에는 세족장과 신발장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하영미 관광과장은 "회산백련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해 사계절 찾고 싶은 회산백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

완도군, 군 발전 아이디어 공모

6월14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

완도군은 상반기 '군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행정에 반영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소통·참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다.

공모 분야는 '치유 관광 활성화 방안'과 인구 감소 대응 및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 일자리 정책',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미래

발전 정책',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 생활 공감 정책', '생활 속 불편·부당 규제 발굴', 기타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다.

공모전 기간은 오는 6월14일까지이며 군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방법은 군 누리집과 국민신문고,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해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기획예산실 정책팀(061-550-50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1차로 담당 부서에서 제안을 검토

한 후 2차로 제안 심사위원회를 열어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등을 평가해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7월 중 상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수 제안은 등급을 결정해 금상(70만원), 은상(50만원), 동상(30만원), 장려상(15만원)을 시상한다.

선정된 아이디어 외에도 공모전 참여자 중 주제를 통해 특산품 등 소정의 선물을 지급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마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는데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수돼 정책 발굴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완도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접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우리 쌀 활용' 교육 추진 진도군농업기술센터

진도군농업기술센터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을 추진했다.

29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2월 우리 쌀 디저트 기초반을 첫 수업으로 시작해 우리쌀 디저트 심화반까지 총 18회로 진행된 교육을 통해 쌀 디저트 상품 전문가 양성과 향토음식 상품화를 도모했다.

교육에 참여한 100여명의 수강생들은 진도산 가루쌀을 활용, 제빵·제과 실습 교육을 통해 스콘, 브라우니, 컵케이크, 쿠키 등 다양한 쌀 디저트 만들기를 실습하고 창업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수강생 중 한명은 "2년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받은 디저트 조리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판매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며 "이번 쌀을 활용한 디저트 교육을 통해 다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진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리 쌀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며 "계속해서 디저트를 개발하고 창업할 수 있는 실전반 개강으로 쌀 가공식품 전문가 양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우리 쌀 제과, 제빵 교육 외에도 쌀을 활용한 발효식품, 떡 제조기 능사 등 식품 가공과 제조에 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연중 개최·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 농촌지원팀(061-540-6123)으로 하면 된다.

진도=백재현 기자